

공 통 문 항

<가> 우리들의 역사의 기록 면에서 그 인격으로나 그 사적(事績)으로나 충무공 이순신의 위에 갈 사람이 얼마 없으리라. 그의 위토(位土)와 묘소가 경매를 당하게 된다니 이런 변이 또 있으랴. 이런 민족적 치욕이 더 있으랴.

세상에서는 민족적 선열 위인을 위하여는 비각(碑閣)을 지으며 동상을 세우며 혹은 기념박물관이 있고 혹은 기념도서관을 두며, 그의 출생한 모옥(茅屋), 그의 손이 닿은 일수(一樹) 일석(一石)이라도 표(標) 지르고 보호하여 후세의 자손으로 하여금 백대 천대까지라도 그들을 흠모하여 민족적 자부심을 기르며, 그들을 추앙하여 민족적 향상심을 분발하게 한다. 불란서의 판테온이 있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가 있음이 가히 그 소이래(所以來)를 알 것이다. 민족적 자부심이 없는 민족이 어찌 퇴패(退敗)를 면할 것이며, 민족적 향상의 목표가 없이 어찌 단결 진취의 민족적 노력이 있을 것이냐?

이 충무공의 인물과 사적은 우리가 아는 바이다. 국난에 임하여 민토(民土)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출했으니 민족적 은인이요, 포폄(褒貶)에 초월하고 진(進)하나 퇴(退)하나 오직 대의를 위했으니 민족의 의범(儀範)이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발명했으니 민족문화의 선구라 할 것이다. 만일 조선인이 조선의 정신을 제대로 가지고 왔다면 그의 비각도 있어야 했을 것이요, 그의 동상도 곳곳이 섰을 것이며, 그의 기념관, 그의 도서관, 그의 박물관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없다할망정 그의 위토와 묘소가 채귀(債鬼)의 손으로 전전한다 하니 수치보담도 한 걸음 넘어서 민족적 범죄라고 할 것이 아니냐?

나옹(拿翁, 나폴레옹)이니 화옹(華翁, 조지 워싱턴)이니 하고 이국(異國)의 위인을 숭양(崇揚)할 줄 알되 자가(自家)의 위인을 모르는 그 시대는 다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조선을 찾자’는 부르짖음이 벌써부터 잦은 이때에도 을지문덕의 묘소가 평토화(平土化)해서 그 자취를 찾기 어려워 우리 후손이 한 줌 흙도 옮기지 못하더니 이제 또 이순신의 사당에 표지(압류표지)가 붙게 만들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책하랴? 굶고 혈뺀 한이 있더라도 묘소를 수호하는 그 위토를 사수하지 못한 그의 자손 일족의 무엄함을 엄책(嚴責)할 것은 물론이어나와 일방으로 채권자인 금융업자에게 대하여서도 그도 또한 조선민족의 일기관이며 일본자인 이상 과연 채권채무의 법적 관계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또는 민족적 체면과 양심을 고려하여 선처할 방법이 없을 것인가? 우리는 먼저 그보다도 민족적 이상이 결여하고, 민족적 정열이 냉각되고, 민족적 자부심이 마비된 조선의 사회를 스스로 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서려 위한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우리는 일층 민족문화에 대한 숭양심과 애착심을 불길질할 필요가 있다.

- 정인보, “민족적 수치”(<동아일보>, 1931년 5월 14일)

<나> 1870년대 이후, 그러니까 대중 정치가 출현하게 되면서부터 사회 조직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비합리적’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새로운 세대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이성을 과대평가해 온 경향을 극복했다. 프로이트, 르봉, 타르드 등은 개인과 사회에 내재하는 비합리적 요소들을 재발견했다. 이제 인간 집단을 한 데 뭉치게 하는 것은 개별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계산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다. 또한 정치 주도 세력들은 예전 왕조 시대의 왕실 권위를 위해 사용하던 과시적 장식을 재생시키는 방식으로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대중들을 규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거권의 확대 과정에 따라 점차 정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대중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다. 민족 만들기야 바로 그것이다.

프랑스 제3공화정에서 만들어진 전통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1875년에서 1914년에 이르는 시기에 프랑스를 주도한 온건 공화주의자들은 민족 전통의 발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혁신을 시도했다. 우선, 교회와 사제의 세속적 등가물이라고 할 만한 초등 교육의 발전을 통해 공화주의의 원리를 확산시켰다. 한 학자가 숨쉬 있게 표현했듯이 ‘농부들을 프랑스인들로’ 변형시키는 이 작업을 통해 프랑스인들은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선량한 민족의 구성원이 되었다. 다음으로, 바스티유 함락 기념제 같은 프랑스대혁명을 기억하는 공공 의례를 발전시켰는데, 이를 통해 현재의 프랑스가 백 년 전 프랑스대혁명의 정신을 승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미국은 남북전쟁을 끝내면서 일차적으로 내부적 통합을 확보했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즉, 출생이 아니라 이민을 통해 미국인이 된 비동질적인 대중을 어떻게 동화시킬 것인가 하는 어려운 정치적 과제에 직면했다. ‘민족으로서 미국인들은 만들어져야 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의 전통들은 무엇보다 그런 목표의 성취를 겨냥해 고안된 것들이다. 한편으로 이민자들은 민족의 역사를 기념하는 의례들—혁명과 건국의 아버지들(7월 4일) 및 프로테스탄트적 앵글로색슨 전통(추수감사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종용 받았는데, 그것들은 이제 공적·사적인 휴일이나 명절이 되었다. 1880년대 이후로 일상화되기 시작한 학교에서의 성조기 경배 등도 같은 방식으로 이들의 정치적 사회화에 기여했다.

<다> 대중적인 영화를 두고 상투적이고 시장 지향적이라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런 영화들이 다양한 집단들에 의해 소비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정한 역사적 맥락과 조건 하에서 대중 영화는 예기치 않은 정치적 효과를 내기도 한다. 예컨대, 대중 영화는 사람들이 형성하는 감정 구조를 통해 그 시기 대중의 유토피아적 욕망을 자극할 수 있다. 관객은 상상 속에서 억압을 초월할 수 있다. 대중 영화의 재현과 서사는 일상의 억압적 정치 환경을 초월하도록 해 준다. 이런 점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강렬한 감각과 서사에 담기게 되는 유토피아적 가능성은 관객의 자기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할리우드 영화는 개인의 성취, 자유, 위선과 부정의 폭로, 불평등의 극복 등의 주제를 낭만적 판타지로 만들어 왔다. 불운하지만 세상에 맞서 투쟁하는 숭고한 인물들이야말로 할리우드가 선호하는 전형적인 주인공들이었다.

<브레이브하트>(1995)는 이런 측면에서 모범적이다. 멜 깁슨이 감독과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13세기 말 스코틀랜드 독립 투쟁의 영웅인 윌리엄 월러스(William Wallace)의 삶과 죽음을 다뤄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특히 기존의 ‘스코틀랜드다움’을 구성하던 진부한 장치(끝없이 펼쳐진 채소밭과 시대에 뒤떨어진 타탄 모직물을 입은 주민들)를 넘어서 민족의 독특한 판타지를 구성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흥행을 위해 제작된 이 영화는 이를 관람한 스코틀랜드 주민들에게 의도치 않게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브레이브하트>의 파급력은 그것을 관람한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문화 속에서 스코틀랜드를 상상하도록 만들어 갔다는 데 있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 축구선수 앨리 맥코이는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 핀란드와의 대결을 앞두고 애국심을 고양하고 팀의 사기를 자극하기 위해 <브레이브하트>의 특별 상영을 요청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이 사례는 대중문화 형식과 실천이 민족적 정서를 표현하는 데 이용되며 때로는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맺고 서로를 강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그들의 숙적인 잉글랜드와의 축구 시합이 벌어질 때 “배넉번*을 기억하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스코틀랜드 운동선수가 어떤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기라도 한다면 언론에서는 흔히 스포츠계의 “브레이브하트”라고 기사 제목을 뽑는다. 이는 영화 안에서의 민족 성취가 스포츠에서의 민족 성취와 서로 뒤엉켜 당대 시민들의 감정 구조와 의미를 생성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 배넉번(Bannockburn): 스코틀랜드 중부 스털링의 남쪽에 있는 도시. 월러스가 죽은 이후 다시 전열을 재정비한 스코틀랜드 군대가 잉글랜드 군대를 격파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브레이브하트> 영화 엔딩에 자막으로 이 사실이 설명되어 있다. 2014년은 배넉번 전투 7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 <나>와 <다>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 형성 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이를 토대로 <가>의 의미를 분석하시오. (1000±100자)

계 열 문 항

<가>

...(전략)...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지나치면서, 그러나 고개는 끄덕이면서 자기 이야기만 열심히 구상한다
대화란 서로가 귀를 틀어막은 채 서로의 등뒤에 있는 벽에 대고 고함치는 행위임

...(중략)...

얼마나 자신을 달래는지 그대는 아는가 나의 자살 시도가 그대에게는 해프닝으로 해치워진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그대와 나 사이엔 국경이 있다는 사실, 말이 안 통하므로 더 이상의 진지함은 없다

말이 안 통해서 술을 먹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고 술을 먹으면 집에 안 들어간다

말이 안 통해서 병 대신 병적인 것, 아픔 대신 아픈적인 것, 애인 대신 애인적인 것에서 우리는 위안받는다
말이 안 통해서 우리는 상처 없는 아픔과 절망 없는 고통을 하고 싶어한다.

- 김중식,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에서 부분 발췌

<나> 언어는 자아와 타인을 만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마치 ‘연결선’과 같다. 타인이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언어가 그의 언어이어야 한다.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사용되고 있던 말에 대한 배움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자신의 종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타인들은 더 많은 공통분모를 가진, 더 명료한 언어를 나에게 준다. 타인들은 나에게 말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말하는 능력을 주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내게 어찌면 원래의 내 목소리를 숨 막히게 하였고, 자유로워지는 데 더디고 허약하게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아와 타인 사이의 ‘연결선’으로서의 인간의 말은 근본적인 모순에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주체의 확인이 동시에 타인의 수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은 언어의 두 가지 기능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과 같다. 한편으로 나는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이것은 언어의 표현적인 기능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나 혼자만의 것은 남겨진 채 타인에게 다가가기 위해, 더 완전하게 타인과 합류하기 위해 나는 말을 한다. 이것은 언어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다. 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의 이중적인 양극성은 일인칭과 삼인칭 사이 그리고 개인적인 주체성과 상식의 객관성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과 같다. 타인을 향한 원심적인 성향과 자아를 향한 구심적인 성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말하자면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말의 습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대립된 양식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인다. 미친 사람이나 신비주의자처럼 나 자신만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공용 언어를 수용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는 것이다. 내가 많이 전달할수록 나는 덜 표현하고 내가 더 표현할수록 나는 덜 전달한다.

<다> 언어는 다의적이다. 종종 하나의 낱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거나, 또는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는 낱말들이 여러 개 있다. 이처럼 하나의 관념을 표현하는 낱말들이 너무 많다는 것과 하나의 낱말이 너무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소통의 문제를 야기한다. 소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이상적인 소통의 뿌리는 통일성 또는 공동체이다. 그것은 같은 관념을 공유하는 두 마음을 의미한다. 두 사람이 같은 낱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같은 낱말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 두 사람이 그 낱말을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면 그들은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같은 낱말을 사용할 때 그 낱말을 같은 관념이나 같은 감정, 같은 생각, 같은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상적인 언어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소통은 쉽지 않다. 아니, 차라리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습 언어와 결부되어 나타나는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를 고민한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의 낱말이 오직 한 가지 의미만을 갖는 이상적인 언어를 발명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의 상호 관련성 또는 연관성을 표현하는 다른 낱말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유’라는 낱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그런데 그 의미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의미들의 상호 연관성은 ‘자유’라는 낱말이 갖는 의미의 일부이다. 만일 우리가 자유라는 낱말의 각각의 의미에 대해 각각 다른 낱말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의미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통에 장애가 되는 낱말의 다의성 또는 하나의 관념을 표현하는 낱말의 다수성은 삶의 다양한 연관성을 보여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삶이 다채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소통의 어려움은 우리의 삶이 열려 있으며 새로운 의미들이 산출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그만큼 삶의 이해를 넓혀 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다.

2. <가>에 나타나는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나>와 <다> 주장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000±100자)